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로구 경복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후배들이 수능 대박을 응원 하고있다(위). 서울 서대문구 중앙여고 앞에서 한 학부모가 수험생 딸을 응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뉴스시스

올 수능, ‘불수능’인 지난해보다 평이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 줄어든 54만8734명이 지원했다. 대입 역사상 가장 적은 학생 수다. 당초 지원한 인원 중에서는 10.14%가 시험장에 나오지 않았다. 재학생 지원자는 작년보다 5만4087명 감소한 39만4024명에 그쳤다. 재학생 지원자가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졸업생은 작년보다 6789명 늘어나 14만2271명이 지원했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 영역의 경우 현직 교사와 입시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고난도 문항은 22번·40번이 꼽힌다.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쉽고 올해 치러진 9월 모의 평가 보다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작년 수능 31번 문항처럼 어려운 문항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현직 교사들의 평가다. 실제로 작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만점자가 148명(0.03%)에 불과했다. 신유형으로는 화법과 작문을 통합해 다룬 6번 문항, 문법영역에서 음운변동과 관련된 것을 묻는 13번, 그리고 문학영역의 32번 문항 등이다.

수학 영역 고난도 문항은 가·나·형 모두 20·21·29·30번 문항으로 분석됐다. 교사들은 수학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과 9월 두차례 진행된 모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난도 문항은 줄었지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전국 응시인원 55만명 ‘역대 최저’ 재학생 지원자 40만명 미만으로

중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이 빠듯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만기 판공고 교사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문제풀이 시간에서 곤란을 겪었을 문제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신유형 문제로는 가형 17번·27번 문항 나형 21번·23번 문항이 꼽혔다.

수능 난이도는 해마다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어영역이 교사들도 정답을 맞추고 힘들 만큼 난이도가 높아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수능 난이도의 적절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관

련해 출제진은 검토위원들의 입소일을 하루 앞당겨 워크숍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 수능도 ‘불수능’이었고, 2011학년도, 2009학년도, 2002학년도 수능은 어려웠다. 반면 2012학년도와 2001학년도 수능은 각각 만점자가 30명과 66명에 달할 정도로 쉬워 변별력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평가원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25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은 12월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BS 연계율 70% 유지 초고난도 문항 없을 것”

심봉섭 출제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4일 “올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면서 “지난해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 1교시가 시작된 오전 8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6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모의평가를 통해 지난해 이 같은 문항은 내지 않겠다는 기준을 유지했다”며 “수험생들의 배경 지식에 따른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 만한 소재와 지문을 찾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이 밝힌 출제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심봉섭 출제위원장이 출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는 영역별로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출제했다.

올해 수능(1교시기준)에는 54만5966명이 지원했으나 5만5414명(10.14%)이 시험장에 나오지 않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18일~22일까지 응시수수료 60%를 환불 신청할 수 있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18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고, 평가원은 25일까지 이를 심사해 정답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hys@

국어, 지난해보다 쉬웠다... 수학은 9월 모평과 비슷

올해 수능 난이도는

올해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영역에 지원했다가 실제로는 응시하지 않은 결시율이 10.14%로 나타나는 등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학생 지원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졸업생 비율은 늘었다. 이런 변화가 표준점수나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초고난도 문항’으로 난이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견줘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역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자 비율도 0.03%(148명)에 불과했다. 고난도 문항은 22번과 40번으로 이 문항들을 얼마나 잘 풀어냈느냐에 따라 최상위권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추천한 현장교사들은 이날 국어 영역이 끝난 뒤 “이번 수능 국어는 전년도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문학영역에서 고전시가인 ‘월선현십육경가’와 ‘어촌기’를 지문으로 삼은 22번과 독서 영역에서 바젤 기준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개념을 지문으로 삼은 40번이 꼽혔다. 김용진 동국대사법대부속여고 교사는 “EBS 교재에 연계된 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문제지.

전년비 쉬웠지만 변별력 갖춰 지난해 국어 31번 악몽 없을 것 독서 지문 해석은 어려웠을 듯

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고난이도 문항 20·21·29·30번

품이지만, 고전시가이고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지문에 일부 포함돼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40번 문항에 대해 김 교사는 “해당 문항과 연계된 지문은 EBS 연계 지문이 아닌데다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며 “또 BIS 비율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어 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입시업체도 대체로 교사들과 비슷한

평가를 내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수능은 전년도나 올해 6·9월 모의평가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며 “선택지와 지문이 다소 짧게 구성돼 체감 난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매우 어려웠던 전년도 수능에 비해 쉬웠지만 변별력은 확보한 시험”이라며 “경제분야를 다룬 독서영역 등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돼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 지문이 전년도에 비해 쉬워졌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다”며 “전년도 1등급 컷인 84점, 2등급 컷인 78점에 비해 등급컷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무작정 쉽지는 않은 변별력은 있는 시험”이라며 “올해 9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난도 문항은 없지만 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IS

문길이가 줄어도 여전히 독서 지문을 읽을 정보량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1등급 컷은 90점 전후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방향과 관련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모든 학생이 유효리를 느끼지 않을만한 소재나 제재를 찾아서 내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수능에서는 배경지식 유무에 따라 (문제 풀이)에 유효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학 “작년 수능·올해 모평과 비슷한 수준”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20번, 21번, 29번, 30번이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수능 2교시 이후 대교협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작년 수능과 9월 모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현장 교사들은 “수학 나형 중 매년 가장 어려운 30번 문항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평가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내용 전체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내용 전체에서 각각 출제됐다. 공통문항으로는 모집단과 표본의 뜻을 알고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이항분포의 뜻을 알고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을 출제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지고 수학 나형에 삼각함수가 포함되는 등 출제범위가 달라진 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4년제 정시 7.9만명 선발... 영역별 반영비율 따라 소신지원

전체 모집인원의 22.7% 전년도 보다 3882명 줄어 대다수 수능 100% 선발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총 모집인원은 7만909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2.7%를 차지한다. 전년도(8만2972명)와 비교하면 3882명 감소했다.

모집시기별로 가군은 서울대 등 138개교, 나군은 고려대, 연세대 등 138개교, 다군은 중앙대 등 121개교다. 대학에 따라 군별 단독 모집대학이 있고,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대학도 있다. 군별 1곳 씩 총 3번 지원 기회가 있으므로 자신의 성적별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

대다수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하지만 건국대·동국대·한양대나 군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성적에 학생부 성적 10%를 반영하므로 학생부 성적이 유리하다면 이들 대학 지원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전형 방식이 다소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자. 서울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학 비중이 높다. 인문계는 국어 33.3%,

(2020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모집 현황)

대학	원서접수	모집군	모집인원	[인문, 자연] 전형방법
건국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191	수능 90 + 학생부 10
경희대	12.27(금)~12.31(화)	가/나	1,459	수능 100
고려대	12.27(금)~12.31(화)	나	670	수능 100
국민대	12.28(토)~12.31(화)	가/나/다	1,169	수능 100
동국대	12.27(금)~12.31(화)	가/나	869	수능 90 + 학생부 10
서강대	12.27(금)~12.31(화)	가	566	수능 100
서울대	12.26(목)~12.29(일)	가	702	수능 100
서울시립대	12.27(금)~12.31(화)	가/나	635	수능 100
성균관대	12.27(금)~12.31(화)	가/나	1,128	수능 100
세종대	12.27(금)~12.31(화)	가/나	959	수능 100
숙명여대	12.27(금)~12.31(화)	가/나	728	수능 100
송실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033	수능 100
연세대	12.27(금)~12.31(화)	나	1,136	수능 100
이화여대	12.27(금)~12.31(화)	가	963	수능 100
중앙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439	수능 100
한국외대	12.27(금)~12.31(화)	가/나/다	1,430	수능 100
한양대	12.27(금)~12.31(화)	가/나	1,034	가군: 수능 100, 나군: 수능 90+학생부 10
홍익대	12.26(목)~12.31(화)	가/나/다	1,522	수능 100

/종로학원하늘교육

수학(나/가) 40.0%, 탐구(사탐/과탐) 26.7%를 적용하고, 자연계는 국어 33.3%, 수학가 40.0%, 과탐 26.7%다.

서강대는 가군 전체 모집단위에서 전년도에 이어 문이과 교차 지원이 허용되고 지난해 적용했던 학생부 비교과 10%를 빼고 수능 100%로 전형한다. 또

문이과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학가형 가산점이 10% 부여된다.

한양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군은 수능 100%로, 나군은 수능 90%와 학생부 10%로 선발한다. 다만 상경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나형 40%, 영어 10%, 사

탐(2과목) 20%로 사탐 비율을 낮춘 대신 수학나형 비율을 높였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이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반면 국민대·숙명여대 등은 국어, 수학, 탐구 모두 백분위 성적을 활용한다.

올해 대입 정시에서는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3년차를 맞은 수능 영어 영역이 이전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영어 영향력이 작은 반면 연세대, 중앙대 등은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큰 편이다. 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 등의 영어 변별력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면 대학 선택의 고민이 없겠지만 영어 2등급이나 특히 3등급을 받을 경우, 국어·수학·탐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 국수탐

기준으로 영어는 등급에 따른 가감점 정도로 합격선을 예측해 지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위권 수능 고득점자 중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 제2외국어 영역의 고득점 여부에 따른 사탐 1과목 대체 등이 중요하다. 자연계의 경우는 서울대(서로 다른 과목 I, II), 연세대(서로 다른 과목), 고려대(과탐 선택 제한 없음)가 과탐 지원 가능 조합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성적 활용 지표, 전형 방식 등이 다소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은 평가이사는 “수험생 수준대별로 상위권 학생들은 모집인원의 특성상 가군, 나군에 실질적으로 소신지원하고, 적정 대학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하면 좋고,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모집군별로 가나다군에 걸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적절하게 배합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www.canon-ci.co.kr

Canon
Delighting You Always

CANON AIR.

World's First



세계 최초,
하이엔드 카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광학 4.2배줌으로 사진의 퀄리티는 물론
크롭 없는 4K 촬영으로
영상의 퀄리티까지 높다

Canon, The Live.
PowerShot G7X Mark III

LIVE
Streaming

4K

4K
Frame Grab

4.2x
OPTICAL
ZOOM

f/1.8-2.8
LENS

Up to
30.0
Frames
Per Sec
RAW Burst

Tilt up 180° / tilt down 45°
LCD

LCD
7.5cm / 3.0"
T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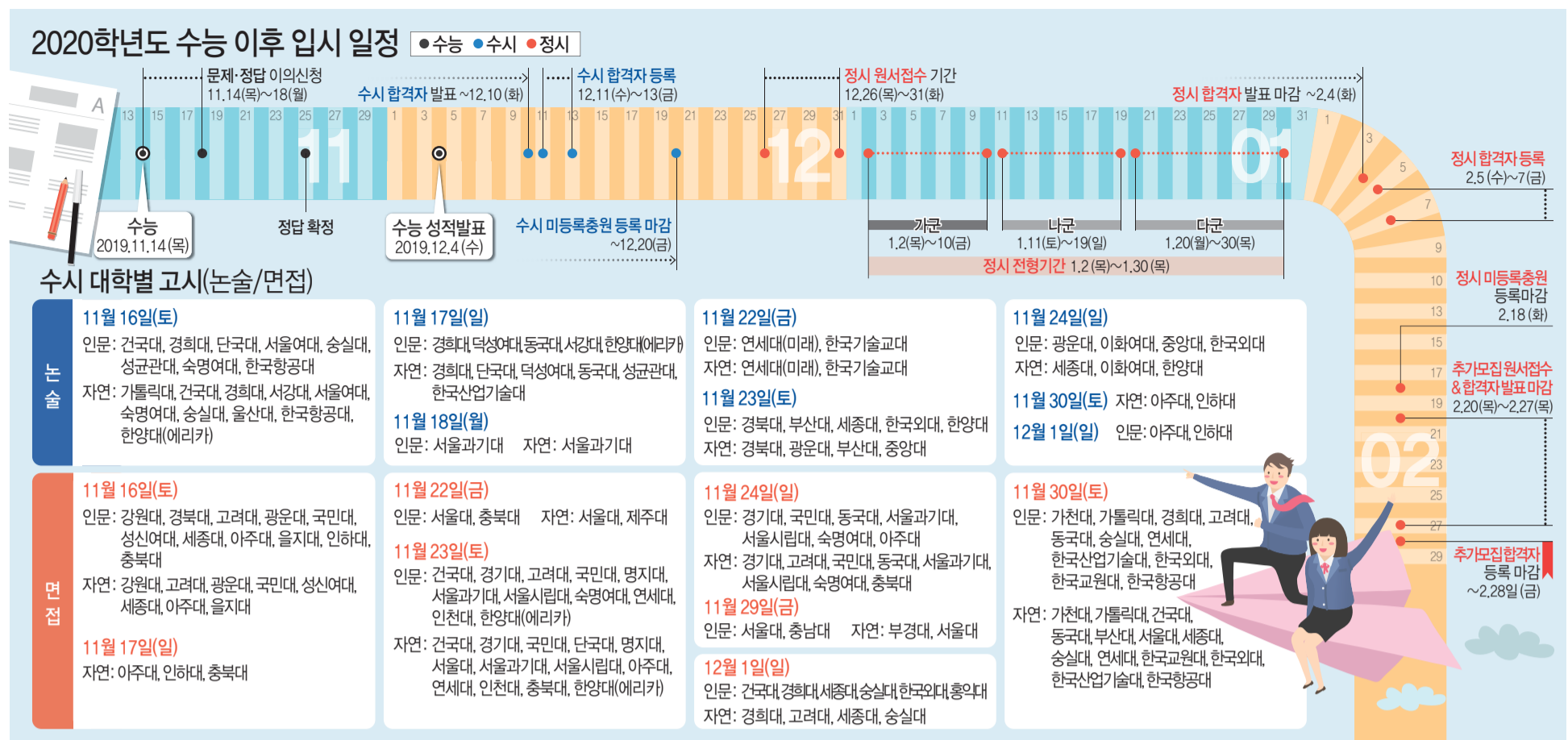
DIGIC
8

1.0
type
CMOS

Wi-Fi
Bluetooth®

Bluetooth®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 진행

가채점 통해 수시·정시 선택... 추가합격자 비율도 체크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확인
정시 각 대학별 유리한 전형 선택
논술 기출문제·출제배경 등 참고
면접 일정·방식 꼼꼼하게 체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정해짐에 따라 앞서 지원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논술 등 대학별고사 지원 여부, 수능 성적 위주 정시 모집 전략을 짜야 한다.

우선 수능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수능 성적을 최대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다만 가채점을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수능 성적 발표일(12월4일) 직후 최선의 지원전략을 신속하게 짤 수 있다.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의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수시지원 대학 중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집중 대비하자. 이때 주의할 점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모집에 적극 공략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이 정시 수능 전형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내달 4일 수능 실제 성적이 발표되면 가나다순별 각 1곳씩 총 3번의 지원 기회를 활용하자.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26일~31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으로 원서접수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

정시 지원시에는 수능 반영 영역 수,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 요소와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지정 과목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내신 반영 방식,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줄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각 대학별 전형 요강과 모집 균별 특징을 고려해 올해 지원자들의 동향도 예 측해보고, 대학별 추가합격자 비율도 체크 해 지원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 '선행학습영향 평가결과보고서' 필독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인문, 서강대 자연, 서울여대, 성균관대 인문, 숙명여대, 송실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자연, 가톨릭대 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등 12개교로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어 17일에는 경희대, 단국대 자연,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인문, 성균관대 자연, 숙명여대 인문, 한양대 에리카 인문 등 8개교가 논술을 치른다.

수시 논술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논술 영향력이 커지면 수능 성적이 기대

보다 낮게 나온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영향 평가결과보고서' 등에서 논술 기출 문제, 출제 배경, 채점 근거, 문제 해석에 대한 방향 등을 찾아 참고하는 게 좋다. 대학에 따라 논술 특강, 논술백서, 입시 결과 등에 학교별 출제 경향을 포함해 논술 대책도 안내한다.

◆ 면접 전형 22일부터... 서류·제시문 기반 대학별 수능 이후 면접전형 역시 대학별 일정과 방식, 최저학력기준 등이 다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대학별로 서울대 면접은 11월22일(일반전형 전체 모집단위, 의·치·수의대 제외), 11월29일, 30일 이어지고, 고려대(11월23일~24일), 연세대(자연계열, 국제계열 11월23일, 인문계열 11월30일), 경희대(11월30일~12월1일) 등 대학·계열·전형별 일정

이 상이다.

예컨대 서울대의 경우, 일반전형 면접은 공동 출제문항을 활용해 심층면접을 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사범대 경우 교직적성·인성면접 포함)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면접은 제시문 활용 면접이고, 경희대는 인성면접으로 치러진다.

제출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하므로 서류에 담긴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미리 생각해주는 게 좋다.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평소 독서활동이 바탕이 된 제시문 이해와 논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등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주요 평가요소다.

◆ 적성고사로 학생부 성적 역전 가능

수능 이후 수시모집 적성고사는 17일 홍익대세종과 한국산업기술대를 시작으로, 23일 고려대세종, 24일 가천대, 30일 평택대, 12월1일 한신대 등 6개교에서 치러진다. 학생부 성적 60%에 적성고사 성적 40%로 선발한다.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응시생 간 점수차가 크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부족해도 적성고사를 잘 보면 2~3등급 정도를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실제로 가천대 전년도 수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가 3점인 것과 비교해 적성고사 1문항당 점수는 3점 또는 4점으로 2~3문항의 차이로 교과성적 2개 등급 이상을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성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대학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표된 예시문항 등을 참고해 시험의 출제 유형을 잘 익히는게 좋다. 난이도는 수능의 70~80% 수준으로 출제되고 출제 범위는 국어, 수학(문과 기준), 영어와 유사하며 부분적으로 순수 적성 문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적성고사는 속도검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더 좋은

교육부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Daejin University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육성사업 선정 Daejin University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30개 대학과 교류 중 청년 일자리 창출(우수중소기업, 중견기업 산업인턴 교육) 중국 소주와 하얼빈 등 4곳

추가학비 부담 없음 2005년부터 국내최초로 DUCC를 설치 운영 현재까지 약 5,700명 이상 이수 중국대학 학위 취득 가능

DUCC 대진대학교 중국캠퍼스 신입생 희망자 전원 중국 유학 가능

캠퍼스내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전국 일자리 창출 유공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교환학생 프로그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경기북부권 대학 중 유일

DEC(대진 엘리트 코스)

엘리트 교육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사회진출·대기업반·공무원반·유학반

Daejin Elite Course 입학장학생 대상으로 선발과정 진행 해외연수, 해외탐방, 해외산업현장탐방 등 기숙사 제공(식비포함), 도서구입비 지원
해외파견 프로그램 캠퍼스내 무료 셔틀버스 운영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지역별 스쿨버스 운영 통학 걱정 없음

서울에서 30분대 거리 대학 지하철7호선 포천까지 개통 예정

글로벌 해외탐방 프로그램

경기 꿈의대학 사업 선정 방학 중 3인 1팀 테마여행
재학 중 유학 및 재정이 탄탄하고 높은 수혜율의 다양한 장학제도
복수학위 취득 가능 투명한 대학 100여 종의 교내·교외 장학금

1,500명 수용 가능 기숙사 신청 신입생 우선 선발

2018년 종합평가 및 부대운영진단 종합우수학군단 선정 20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고용노동부, 향후 5년간) 하얼빈사범대학
학생편의를 위한 학생식당, 휴식공간, 카페 등 최신시설을 자랑 단기파견학생 프로그램 전산실, 독서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시설물 면적 전국 3위 규모 남,녀 최신식 기숙사 운영
학생1인당 평균 이용시설면적 전국 최상위 아름다운 캠퍼스

-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선정
-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학생성공의 중심, 대진대학교
-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 스마트캠퍼스 가깝고 편한
-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 육성

교육국제화 역량인증대학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선정 연속 선정(2014~2021)

분당재생병원 학생 임상 실습 협약 체결 청년인턴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정규직 전환률 90%)

국민건강보험
임상병원, 경희
의료원과 학생
임상실습협약
전국최초 재학생40%할인
분당재생병원 이용시
건강검진 할인
더좋은 대학!

무료교내Wi-Fi

졸업자 전원 우수 의료기관 취업
Daejin University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

2019년 여성 ROTC 전국 2위, 19명 합격 교육중심대학 대진대음대 글로벌선도대학

추가학비 없이 유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더좋은 교육

국내최대규모 통학버스

중소기업 탐방 및 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14개노선 55대) 운영 대학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대학! 대진대학교가 만들어갑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안내

정시 원서 접수 (가, 나, 다군) 2019년 12월 26일(목) ~ 12월 31일(화)

실기고사

| 스포츠과학과 | 2020년 1월 20일(월) | 디자인학부 | 2020년 1월 21일(화)

| 현대조형학부 | 2020년 1월 21일(화) | 연극영화학부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합격자 발표

2020년 2월 4일(화) 예정

합격자 등록

2020년 2월 5일(수) ~ 2월 7일(금)

제교시
[출수형]

국어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 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친 표면에 글씨를 쓰면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 청중의 질문을 듣고) 길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으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불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불이 구르지요. 이 과정에서 불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의 불이 빠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죠?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불을 넣은 후 밑 부분을 오므려 불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불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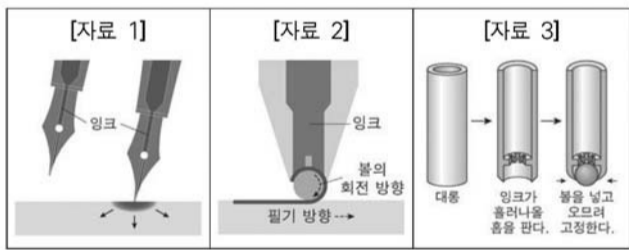
또한 볼펜은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자가 물에 잘 번지지 않는 유성 볼펜, 필기감이 부드러운 수성 볼펜, 여러 색을 하나에 담은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압 볼펜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볼펜은 신문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가 특허를 낸 이후 상용화되면서 기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자료	발표 내용	매체 자료를 활용한 이유
① 자료 1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 정도의 차이를 대비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② 자료 2	볼펜의 제작 과정	볼펜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③ 자료 2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	불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불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해
④ 자료 3	볼펜의 불을 고정하는 과정	볼펜의 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⑤ 자료 3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	잉크가 흘러나오는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보여 주기 위해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만년필 외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만년필로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을 사용해야 하나요?
-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공 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큼니다. 실제로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회사는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 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2: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 지능 면접이 신뢰성도 높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원자들의 면접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돼 결국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시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찬성 1: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B]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 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토론 후 과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나) 학생의 초고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 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느라 진땀을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미래에 인공 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인공 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 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일 뿐인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 지능이 인간을 판단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 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인공 지능은 길로 드러난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지만 인간은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여 사고한다. 인공 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분석을 할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기계가 타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이 기계에 예측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인공 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인간은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인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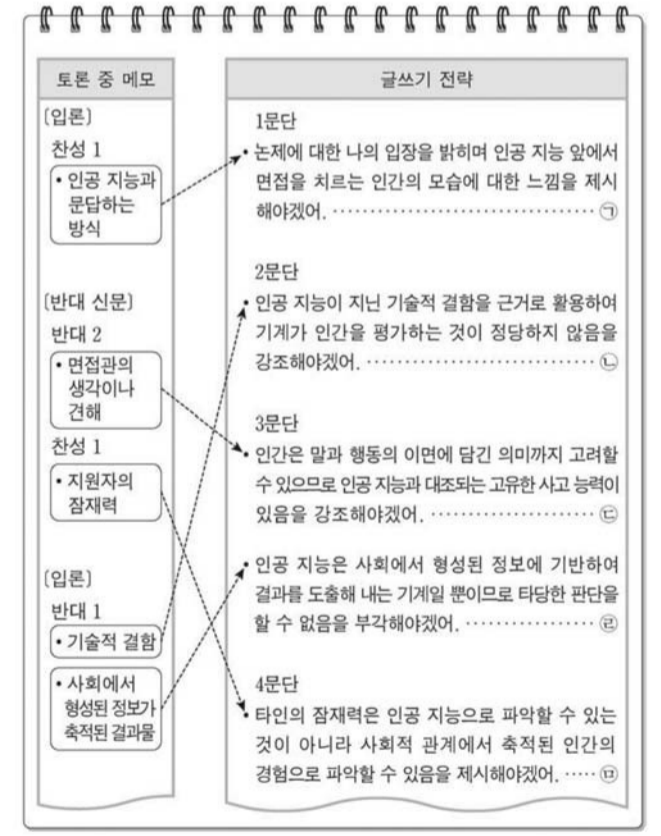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편리한가?
▶찬성 1: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대 1: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쟁점 2]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경제적인가?
▶찬성 1: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큼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
▶반대 1: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쟁점 3]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는 객관적인가?
▶찬성 1: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객관적임을 밝히고 있다. ……㉣
▶반대 1: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 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제교시(출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1	④	2	4	⑤	2
2	③	3	5	②	2
3	①	2	6	②	2



**HUFS만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다양한 세상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형 글로벌 융복합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12.27(금) 10:00 ~ 12.31(화) 18:00

* 전 세계 98개국 832개 대학/기관과 교류

7.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 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친구의 조언: 1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 너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2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

-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인공 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 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객체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④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인공 지능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 주제: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름.
○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나) 학생의 초고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져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 지역 방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방언의 어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방언 어휘 중 특정 단어들을 우리 지역 초등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가 확산되어 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일부 학생들은 표준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 방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역 방언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 방언의 가치 때문이다. 지역 방언은 표준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슬기' 외에 '울갱이, 데사리, 민물고동'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지역 방언이 있는 것처럼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지역 방언의 [A]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8. ㉠, ㉡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① ㉠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 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② ㉠을 고려하여,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③ ㉠을 고려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한다.
④ ㉡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⑤ ㉡을 고려하여,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며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한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1] 언어 의식 조사
표준어 사용자가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 (단위: %)
2010년: 58.9 (편하고 친근함), 17.0 (불편하고 어색함), 23.3 (별 느낌 없음), 0.8 (모름/무응답)
2015년: 42.5 (편하고 친근함), 19.1 (불편하고 어색함), 38.3 (별 느낌 없음), 0.1 (모름/무응답)

- ① [자료 1]: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② [자료 1]: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방언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③ [자료 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이 부재한 것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④ [자료 2]: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⑤ [자료 1]과 [자료 2]: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중 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10.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점검 [B]에는 (㉠)해야겠다.
고친 글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우리의 언어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재검검 고친 글을 읽어 보았는데 (㉡)해야겠다.
다시 고친 글 지역 방언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 ① ㉠: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② ㉠: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③ ㉠: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④ ㉠: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추가
㉡: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
⑤ ㉠: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
㉡: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 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줄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옮겨나 옮기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알'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알 세대'의 '알', '알대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벌'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② '알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알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둠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빛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를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빛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더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빛쟁이 ② 빛쟁이, 금방
③ 뒤, 돈 ④ 뒤, 금방, 돈
⑤ 빛쟁이, 뒤, 금방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7 4 2 10 1 2
8 3 2 11 5 2
9 4 3 12 2 3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19 QS 아시아 대학평가
TOP 1%

2019 Leiden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국내 일반대학 1위

2020 Times 세계대학평가
국내 10위

세종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면접·논술고사 일정

면접고사	예체능 특기자	영화예술학과 - 연출제작 인문계열	2019. 10. 19(토) 2019. 12. 1(일)	논술고사	논술 우수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2019. 11. 23(토) 10시 ~ 12시
	창의인재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2019. 12. 1(일)	자연 계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19. 11. 30(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19. 11. 24(일) 10시 ~ 12시		
고른기회 서해5도 사회기여 및 배려자			인문계열 자연계열		2019. 11. 16(토)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2019. 11. 16(토)				



세종대학교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꽃]'은 ④, '일[일]'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화+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쌍]'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닙]'에서의 [닙]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함]'에서의 [함]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화[화]'와 같아요.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ㅣ'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예) 활 쏘리(활 쏘 이+∅) [활 쏘 이가], 새(새+∅)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예) 쇠(쇼+ㅣ)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 예) 꽃 도쿄 [꽃 좋고], 나무 셋는 [나무 서 있는]

<보기 2>

㉠: 나리 저머리	[날이 저물어]
㉡: 太子 오노다 드르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 내해 드리 업도다	[내천에 다리가 없도다]
㉣: 아드리 孝道하고	[아들이 효도하고]
㉤: 孔子 드르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 ① ㉠: a, d ② ㉠: a, c ③ ㉡: b, c
 ④ ㉡: b, d ⑤ ㉢: c, c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하늘에 <u>뜬</u> 태양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늘 <u>푸르던</u> 하늘	㉣ 운동장에 <u>남은</u> 아이들
㉤ 내가 <u>읽는</u>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u>찬</u> 교실
㉦ 달리기가 제일 <u>빠른</u>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르	-(으)르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르'는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르'는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르'는 ㉣에 해당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같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같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올이 ㉠이라면 올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올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올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논, 미러리스카메라 사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

내달 25일까지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

캐논은 가벼운 무게와 고성능을 겸비한 미러리스 카메라 2종 구매하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를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제품을 구매하고 정품등록한 고객 전원에게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이번 이벤트는 캐논의 엔트리급 미러리스 카메라 2종 EOS M50, EOS M100 모델로 구성된다. EOS M50은 소형 경량 디자인에 4K 고해상도 영상, 회전형 스위블 액정 등을 갖춘 유튜브나 브이로그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다.

EOS M100은 약 2420만 화소의 APS-C 타입 센서에 약 266g의 가벼운 무게, 직관



캐논이 가벼운 무게와 고성능을 겸비한 미러리스 카메라 2종 구매하고 정품등록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모두의 해피엔딩' 이벤트를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캐논

적인 터치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특히, 블랙, 화이트, 핑크의 총 3가지 바디 컬러에 7

가지 페이스커버, 여성 데일리백 브랜드 파니와 콜라보레이션한 'EOS M100 핑크 X 파니 데님 에디션'을 선보이는 등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손색 없다.

EOS M50 제품을 구매하면 정품 배터리 LP-E12,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5만원), 로테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 중 한 가지를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EOS M100을 구매한 고객은 정품 배터리 LP-E12,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3만원), 프리미엄 레더 바디 자켓 중 한 가지를 사은품으로 증정되며, EOS M100 핑크 X 파니 데님 에디션 구매 시 EF-M 15-45mm F3.5-6.3 IS STM 렌즈, 파니 데님 클러치, 파니 아일랜드 타이드 스트랩이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구세원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 답	배 점	문 제	정 답	배 점
13	④	2	16	②	2
14	③	2	17	②	2
15	①	2			

Laheali

★ 수능 끝! **할인** 시작!

수고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라힐리 수능특가 프로모션!

SOOTHING

수험 생활로 지치고
피곤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



OXXYNEA

22가지 과일&채소에서
유래된 '옥시니아' 성분 함유

Laheali Earth Oxynea Soothing Cream

라힐리 어스 옥시니아 수딩 크림

1+1 EVENT

- ❖ 소중한 친구와 함께 나눠 쓰는 수딩크림 1+1 프로모션
- ❖ 라힐리 공식 인스타그램(@laheali_official) 팔로잉하면 푸짐한 선물이 가득!
- ❖ 지금 바로 라힐리 공식 홈페이지 www.healit.kr에서 만나보세요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이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과 ㉢ 이외에는 ㉡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을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을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과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과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을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신종기와 바꿨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녘 두던 바ტი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혼 빗치 되야 잇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호자스라
불근 게 어물고 높은 돛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어흔 긴 물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리오니
㉡ 돛든빈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푸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潮)*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친 빗치 옥루(玉樓)라 다들소나
청춘(淸淸)을 빗째 열고 큰 잔의 7독 브어
㉣ 죽엽(竹葉) 7는 술물 돌빛 조차 거후로니
표연훈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適仙) 이려하야 들을 보고 밋치맛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울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륙이나 다들소나
㉠ 갈호 어조(魚鳥)애 새 밍세 집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섰기엇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려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 샅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roi 비유.
- * 모재: 따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 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권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단단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중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업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시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둑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지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 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빛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선 냇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지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할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현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배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진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현십육경가」는 월선현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호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게’와 살진 ‘높은 돛’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 제	정 답	배 점	문 제	정 답	배 점
18	④	2	21	②	2
19	⑤	3	22	⑤	3
20	②	2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염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이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체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에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할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대진대, 총 1793명 선발... 540명 정시모집

모집군·전형방법 등 작년과 동일

대진대학교는 2020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1793명 중 540명(30%)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군별로 가군(글로벌산업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나군(공공인재대학, 휴먼IT공과대학), 다군(인문예술대학, 예체능계열, 대순종학대학) 전형이 치러진다.

대진대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교해 모집군, 전형방법,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을 70%(각35%), 탐구 30%로 유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확대했다.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한편, 대진대 학생들은 이 대학의 질 높은 장학제도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대진대의 장학금 규모는 2015년 재적학생 1만 명 이상, 4년제 일반대 기준 전국 4위 수준이다. 2016년 2학기 기준으로 장학 수혜를 받은 학생이 5400여명에 달하고 60여개의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인재장학금·취업장려장학금·학생활동장려금·공로장학 등 16개의 장학금 항목을 신설·운영해 장학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23	①	2	26	⑤	2
24	③	2	27	①	2
25	①	2	28	③	3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넣림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 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흰히 체크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기 쫓다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뒤편이 하나 제대로 남아있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짝 튀어나와 뿔뿔해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 서 있었다.

—닐끔 털어 넣지 못하겠니, 응?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줄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뎨 그제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림용 신행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봉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릴 때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증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복적거리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언짢을 쫓는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쪽의 눈갈 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팎에다 새우깡 열 봉지, 김 대어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증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세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흥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외이다. 두 형께서 과도히 끈이들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해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 하면서 사레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물을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다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회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회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 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백한 옥과 빛나는 보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흠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겠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물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되다.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배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할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한채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누기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대에 들어온 지 오륙달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리러는 바는 아버지, 어머니와 낭군뿐이라 이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29	①	2	31	⑤	2
30	①	2	32	⑤	3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피밍 프랑스 세더마틴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톤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센터 **070-4870-0708**

[B] 바이옴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의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층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웁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언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웁니다.”

부마가 바이옴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생긱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비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33.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근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35.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긱.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긱.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긱.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긱.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긱.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제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제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①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

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밑줄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제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33	③	2	37	①	2
34	④	2	38	③	2
35	③	2	39	④	2
36	③	3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제회계기준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바젤Ⅱ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제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였군.
-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제회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제회계 기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갑 은행이 바젤Ⅰ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Ⅲ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 8%가 넘도록
-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에서는 움직임을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조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새장 문을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40	5	3	43	4	2
41	5	2	44	2	2
42	3	2	45	4	3

“수분+영양 크림으로 나도 ‘꿀피부’ 대학생”

라힐리 '어스 옥시니아 수딩크림'
수험생 대상 '1+1 프로모션' 진행

홈에스테틱 브랜드 라힐리가 수능 준비에 지친 수험생을 위한 수딩크림 '어스 옥시니아 수딩크림(사진)'을 출시했다. 오랜 시간 교실에서 보내면서 수능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은 수험생들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기 마련이다.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및 영양분의 고른 섭취 그리고 수분과 영양의 공급을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 라힐리가 출시한 '어스 옥시니아 수딩



크림'은 지중해의 청량한 바다 님은 청록 빛 수딩크림으로 가벼운 텍스처가 수분을 머금은 수분보호막을 형성해 예민해

진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준다. 22가지 과일&채소에서 유래된 항산화 에너지 결정체 '옥시니아'가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을 동시에 선사하며 맑고 투명한 생기를 부여하며, 미백 효과에 탁월한 NAC성분이 함유돼 투명하고 밝은 피부로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라힐리는 수험 생활로 수고한 수험생들이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능특가 수딩크림 1+1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라힐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제2교시
[가형(홀수형)]

수학영역

1. 두 벡터 $\vec{a} = (3, 1)$, $\vec{b} = (-2, 4)$ 에 대하여 벡터 $\vec{a} + \frac{1}{2}\vec{b}$ 의 모든 성분의 합은? [2점]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2. $\lim_{x \rightarrow 0} \frac{6x}{e^{4x} - e^{2x}}$ 의 값은? [2점]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3. 좌표공간의 두 점 A(2, 0, 1), B(3, 2, 0)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가 (0, a, 0)일 때, a의 값은? [2점]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4. $(2x + \frac{1}{x^2})^4$ 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는? [3점]
 ① 16 ② 20 ③ 24 ④ 28 ⑤ 32

5. 곡선 $x^2 - 3xy + y^2 = x$ 위의 점 (1,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점]
 ① $\frac{1}{12}$ ② $\frac{1}{6}$ ③ $\frac{1}{4}$ ④ $\frac{1}{3}$ ⑤ $\frac{5}{12}$

6.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네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3점]
 ① $\frac{2}{5}$ ② $\frac{16}{35}$ ③ $\frac{18}{35}$ ④ $\frac{4}{7}$ ⑤ $\frac{22}{35}$

7. $0 < x < 2\pi$ 일 때, 방정식 $4\cos^2 x - 1 = 0$ 과 부등식 $\sin x \cos x < 0$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3점]
 ① 2π ② $\frac{7}{3}\pi$ ③ $\frac{8}{3}\pi$ ④ 3π ⑤ $\frac{10}{3}\pi$

8. $\int_e^{e^2} \frac{\ln x - 1}{x^2} dx$ 의 값은? [3점]
 ① $\frac{e+2}{e^2}$ ② $\frac{e+1}{e^2}$ ③ $\frac{1}{e}$ ④ $\frac{e-1}{e^2}$ ⑤ $\frac{e-2}{e^2}$

9.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0 < t < \frac{\pi}{2}$)에서의 위치 (x, y)가
 $x = t + \sin t \cos t$, $y = \tan t$
 이다. $0 < t < \frac{\pi}{2}$ 에서 점 P의 속력의 최솟값은? [3점]
 ① 1 ② $\sqrt{3}$ ③ 2 ④ $2\sqrt{2}$ ⑤ $2\sqrt{3}$

10. $\overline{AB} = \overline{AC}$ 인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angle A = \alpha$, $\angle B = \beta$ 라 하자. $\tan(\alpha + \beta) = -\frac{3}{2}$ 일 때, $\tan \alpha$ 의 값은? [3점]
 ① $\frac{21}{10}$ ② $\frac{11}{5}$ ③ $\frac{23}{10}$ ④ $\frac{12}{5}$ ⑤ $\frac{5}{2}$

11. 곡선 $y = ax^2 - 2\sin 2x$ 가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3점]
 ① 4 ② 5 ③ 6 ④ 7 ⑤ 8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1	⑤	2	7	②	3
2	③	2	8	⑤	3
3	②	2	9	③	3
4	⑤	3	10	④	3
5	④	3	11	④	3
6	③	3			

연우뮤지컬2

2011 CJ AZIT CREATIVE MINDS 선정작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작

2013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2013 더뮤지컬 올해의 베스트 창작뮤지컬 BEST-3

2013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M U S I C A L

여신님이 보고계셔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특별할인!

~~S석 55,000원~~
19,900원

※ 11.16 (토) ~ 12.29 (일) 공연 예매 시 적용 (본인에 한함) ※
※ 관람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미 지참 시 정가에 대한 차액 지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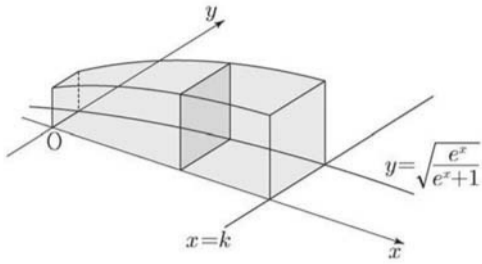
2019.11.16 – 2020.03.01 • 대학로유니플렉스 1관

성두섭 조성윤 서경수 정욱진 정휘 진호 박준휘 홍우진 윤석원 차용학
강기동 안지환 강기현 조풍래 김대웅 진태화 손유동 이지숙 한보라 최연우

프로듀서 유인수 | 연출 박소영 | 작/작사 한정석 | 작곡 이선영 | 편곡/음악감독 양주인 | 움직임구성 홍유선 | 무대디자인 이은경 | 조명디자인 이현규
의상디자인 한경인 | 음향디자인 권지휘 | 소품디자인 김정란 | 분장디자인 김민경 | 무대감독 (주) MAP | 제작PD 이지연
제작/기획 (주)연우무대 | 후원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효성 (주)지승건설엔트 (주)차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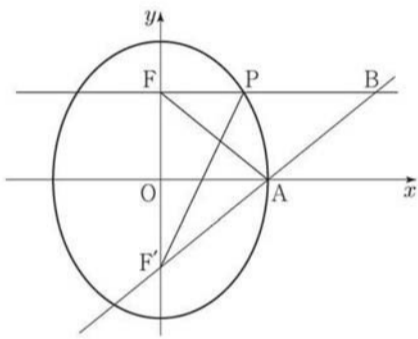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공연 문의 클립서비스 1577-3363

12. 그림과 같이 양수 k 에 대하여 곡선 $y = \sqrt{\frac{e^x}{e^x+1}}$ 과 x 축, y 축 및 직선 $x=k$ 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가 $\ln 7$ 일 때, k 의 값은? [3점]



- ① $\ln 11$ ② $\ln 13$ ③ $\ln 15$ ④ $\ln 17$ ⑤ $\ln 19$

13. 그림과 같이 두 점 $F(0, c)$, $F'(0, -c)$ 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frac{x^2}{a^2} + \frac{y^2}{25} = 1$ 이 x 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A 라 하자. 직선 $y=c$ 가 직선 AF' 과 만나는 점을 B , 직선 $y=c$ 가 타원과 만나는 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P 라 하자. 삼각형 BPF' 의 둘레의 길이와 삼각형 BFA 의 둘레의 길이의 차이가 4일 때, 삼각형 $AF'F$ 의 넓이는? (단, $0 < a < 5$, $c > 0$) [3점]



- ① $5\sqrt{6}$ ② $\frac{9\sqrt{6}}{2}$ ③ $4\sqrt{6}$
 ④ $\frac{7\sqrt{6}}{2}$ ⑤ $3\sqrt{6}$

14.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 10개, 숫자 2가 적혀 있는 공 20개, 숫자 3이 적혀 있는 공 30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하여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변수 Y 라 하자. 다음은 확률변수 Y 의 평균 $E(Y)$ 와 분산 $V(Y)$ 를 구하는 과정이다.

주머니에 들어 있는 60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하자. 이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변수 X 라 하면 X 의 확률분포, 즉 모집단의 확률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X	1	2	3	합계
$P(X=x)$	$\frac{1}{6}$	$\frac{1}{3}$	$\frac{1}{2}$	1

따라서 모평균 m 과 모분산 σ^2 은
 $m = E(X) = \frac{7}{3}$, $\sigma^2 = V(X) = \text{ (가) }$

이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임의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bar{X} 라 하면

$E(\bar{X}) = \frac{7}{3}$, $V(\bar{X}) = \text{ (나) }$

이다. 주머니에서 n 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X_n 이라 하면

$Y = \sum_{n=1}^{10} X_n = 10\bar{X}$

이므로
 $E(Y) = \frac{70}{3}$, $V(Y) = \text{ (다) }$

이다. 위의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 , q , r 라 할 때, $p+q+r$ 의 값은? [4점]

- ① $\frac{31}{6}$ ② $\frac{11}{2}$ ③ $\frac{35}{6}$ ④ $\frac{37}{6}$ ⑤ $\frac{13}{2}$

15. 지수함수 $y = a^x$ ($a > 1$)의 그래프와 직선 $y = \sqrt{3}$ 이 만나는 점을 A 라 하자. 점 $B(1, 0)$ 에 대하여 직선 OA 와 직선 AB 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의 값의 곱은? (단, O 는 원점이다.) [4점]

- ① $3^{\frac{1}{3}}$ ② $3^{\frac{2}{3}}$ ③ 3 ④ $3^{\frac{4}{3}}$ ⑤ $3^{\frac{5}{3}}$

16.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의 모든 순서쌍 (a, b, c, d) 의 개수는? [4점]

- (가) $a+b+c-d=9$
 (나) $d \leq 4$ 이고 $c \geq d$ 이다.

- ① 265 ② 270 ③ 275 ④ 280 ⑤ 285

17.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 가 있다. $\overline{PB} - \overline{PC} = 2$ 를 만족시키는 점 P 에 대하여 선분 PA 의 길이가 최소일 때, 삼각형 PBC 의 넓이는? [4점]

- ① $20\sqrt{3}$ ② $21\sqrt{3}$ ③ $22\sqrt{3}$
 ④ $23\sqrt{3}$ ⑤ $24\sqrt{3}$

18. 확률변수 X 는 정규분포 $N(10, 2^2)$, 확률변수 Y 는 정규분포 $N(m, 2^2)$ 을 따르고, 확률변수 X 와 Y 의 확률밀도함수는 각각 $f(x)$ 와 $g(x)$ 이다.

$f(12) \leq g(20)$

z	$P(0 \leq Z \leq z)$
0.5	0.1915
1.0	0.3413
1.5	0.4332
2.0	0.4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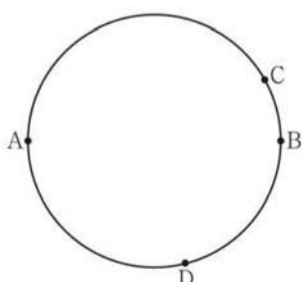
을 만족시키는 m 에 대하여 $P(21 \leq Y \leq 24)$ 의 최댓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4점]

- ① 0.5328 ② 0.6247 ③ 0.7745
 ④ 0.8185 ⑤ 0.9104

19. 한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네 점 A, B, C, D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overline{AD}|^2$ 의 값은? [4점]

- (가) $|\overline{AB}| = 8$, $\overline{AC} \cdot \overline{BC} = 0$
 (나) $\overline{AD} = \frac{1}{2}\overline{AB} - 2\overline{BC}$

- ① 32 ② 34 ③ 36 ④ 38 ⑤ 40



20.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4점]

- (가)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나)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 ① $\frac{11}{16}$ ② $\frac{23}{32}$ ③ $\frac{3}{4}$ ④ $\frac{25}{32}$ ⑤ $\frac{13}{16}$

21.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 = e^x$ 위의 점 (t, e^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 = f(x)$ 라 할 때, 함수 $y = |f(x) + k - \ln x|$ 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 의 최솟값을 $g(t)$ 라 하자. 두 실수 a, b ($a < b$)에 대하여 $\int_a^b g(t) dt = m$ 이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점]

- <보 기>
 ㄱ. $m < 0$ 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 b ($a < b$)가 존재한다.
 ㄴ. 실수 c 에 대하여 $g(c) = 0$ 이면 $g(-c) = 0$ 이다.
 ㄷ. $a = \alpha$, $b = \beta$ ($\alpha < \beta$)일 때 m 의 값이 최소이면 $\frac{1+g'(\beta)}{1+g'(\alpha)} < -e^2$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2. 함수 $f(x) = x^3 \ln x$ 에 대하여 $\frac{f'(e)}{e^2}$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23. 확률변수 X 가 이항분포 $B(80, p)$ 를 따르고 $E(X) = 20$ 일 때, $V(X)$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12	②	3	18	①	4
13	①	3	19	⑤	4
14	④	4	20	①	4
15	②	4	21	⑤	4
16	③	4	22	4	3
17	⑤	4	23	15	3

우썩! 드디어! 에 이어 이번엔 연극이다!
웃음 가득 재미 여기에 로맨틱까지~!

조태관

허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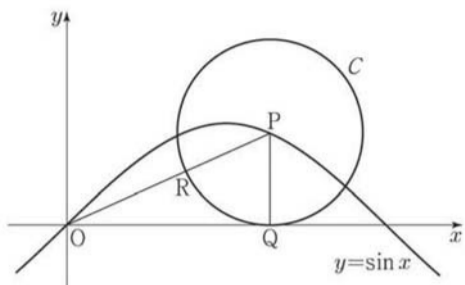
연극 **운빨로맨스** 원작 김달님

: 재앙소멸 운명극복 로맨틱 코미디

2017. 1. 13 ~ OPEN RUN | 스카이씨어터 1관

공동제작 PLAY혜움 컬처마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컬처마인 1566-5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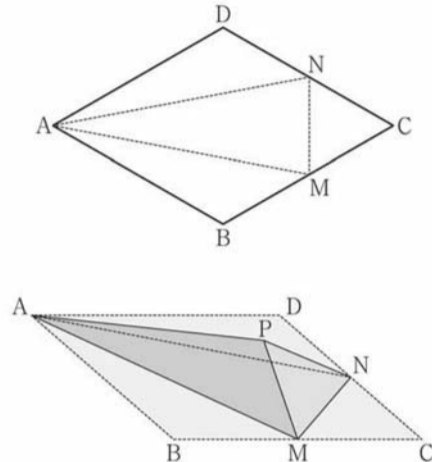
24. 좌표평면에서 곡선 $y = \sin x$ 위의 점 $P(t, \sin t)$ ($0 < t < \pi$)를 중심으로 하고 x 축에 접하는 원을 C 라 하자. 원 C 가 x 축에 접하는 점을 Q , 선분 OP 와 만나는 점을 R 라 하자.
 $\lim_{t \rightarrow 0^+} \frac{OQ}{OR} = a + b\sqrt{2}$ 일 때, $a+b$ 의 값을 구하시오.
 (단, O 는 원점이고, a, b 는 정수이다.) [3점]



25.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 라 하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 라 하자. $a-b$ 의 값이 3일 확률을 $\frac{q}{p}$ 라 할 때,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3점]

26. 함수 $f(x) = (x^2 + 2)e^{-x}$ 에 대하여 함수 $g(x)$ 가 미분가능하고
 $g\left(\frac{x+8}{10}\right) = f^{-1}(x), g(1) = 0$
 을 만족시킬 때, $|g'(1)|$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27.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이고 $\angle BAD = \frac{\pi}{3}$ 인 마름모 $ABCD$ 모양의 종이 있다. 변 BC 와 변 CD 의 중점을 각각 M 과 N 이라 할 때, 세 선분 AM, AN, MN 을 접는 선으로 하여 사면체 $PAMN$ 이 되도록 종이를 접었다. 삼각형 AMN 의 평면 PAM 위로의 정사영의 넓이는 $\frac{q}{p}\sqrt{3}$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종이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으며 P 는 종이를 접었을 때 세 점 B, C, D 가 합쳐지는 점이고,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28.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다섯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

- (가)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 (나)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한다.

29. 좌표공간에서 두 점 $A(3, -3, 3), B(-2, 7, -2)$ 에 대하여 선분 AB 를 포함하고 구 $x^2 + y^2 + z^2 = 1$ 에 접하는 두 평면을 α, β 라 하자. 두 평면 α, β 와 구 $x^2 + y^2 + z^2 = 1$ 의 접점을 각각 C, D 라 할 때, 사면체 $ABCD$ 의 부피는 $\frac{q}{p}\sqrt{3}$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30. 양의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 = t^3 \ln(x-t)$ 가 곡선 $y = 2e^{x-a}$ 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 의 값을 $f(t)$ 라 하자. $\left\{f'\left(\frac{1}{3}\right)\right\}^2$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엔제리너스 달달한 초콜릿으로 수능 스트레스 ‘사르르’

177년 역사 ‘칼리바우트’와 협업 벨지안 초코 음료 3종 구매시 쿠폰

엔제리너스가 오는 12월 31일까지 177년 역사를 자랑하는 벨기에 초콜릿 브랜드 ‘칼리바우트’와 콜라베이션을 통해 신제품 ‘벨지안 초콜릿’ 4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1842년 창립한 칼리바우트는 벨기에에서 다크초콜릿을 처음 생산한 곳으로,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초콜릿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글로벌 초콜릿 1등 회사인, 칼리바우트의 최상급 프리미엄 초콜릿을 활용해 진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이번 벨지안 초코 음료 3종은 달콤하고 감미로운 초코와 부드러운 우유가 섞인 ‘밀

크 초코’, 카카오 초콜릿이 들어가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다크 초코’, 마지막으로 달콤 씹새롭힌 다크초코와 흑당 시럽이 섞인 ‘흑당 초코’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 초코 음료와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진하고 촉촉한 초콜릿 필링의 3단 ‘초콜릿 레이어 케이크’도 함께 출시된다. 또한 벨지안 초코 음료 3종 구매시 ‘시크릿 스탬프 쿠폰 증정’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5회 스탬프 쿠폰 적립하면 음료 등 다양한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엔제리너스 관계자는 “프리미엄 리얼 초코 원재료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벨지안 초코 음료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색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엔제리너스 벨지안 초콜릿 4종 /롯데GRS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2교시(가)형(홀수형) 수학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24	2	3	28	450	4
25	137	3	29	29	4
26	5	4	30	64	4
27	8	4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

IMPOSSIBLE IS POSSIBLE

사진展

한국 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전

01.02 - 03.29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전시 관람료 50% 할인 (학생증 지참시)
전시 관람료 50% 할인 (학생증 지참시)
전시 관람료 50% 할인 (학생증 지참시)





치피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가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엔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